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제공

전주시, 6월 2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6명 공개 모집

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30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2023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6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의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연령은 만18세~만39세이다.

단, △직전 연속 3년째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하게 되며, 만65세 미만 일자리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7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스포츠클럽 이용권 사업 등 DB 구축사업 △도시관리자료실 활성화 지원사업 등 서비스 지원 사업 △전주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등 환경 정비사업 등 총 72개 사업에 배치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태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청소년 인문학 초빙강의 '내 인생 내가 만든다'

전주시 평생학습관, 양지중서 한상덕 경성국립대 교수 초청 강연 진행

전주시 평생학습관(관장 권인숙)은 지난 26일 전주양지중학교 강당에서 1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인문학 초빙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한상덕 경성국립대학교 영어중문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내 인생 내가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한 교수는 "청소년은 힘이 필요하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잠깐의 휴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면서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을 보듬고 다독이며 튼튼한 마음 근육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의 이후에는 전주양지중학교 밴드 동아리인 '블협화음'과 댄스 동아리인 '아레테' 등 학생들이 그동안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지난 26일 전주양지중학교 강당에서 1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인문학 초빙강의를 개최했다.

같이 뒀던 실력을 뽐내는 자리도 마련됐다.

권인숙 전주시평생학습관장은 "청소년이 평소 많이 읽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타인의 이해와 경청을 경험해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민·관 합동 정비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한옥마을 등 중점관리구역 환경 정비 활동·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마을 등 중점관리구역의 거리환경 취약지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전주한옥마을일원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1회용품줄이기 시민활동가 등과 함께 중점관리구역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중점관리구역과 전주시내 주요 변화가 등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 정비에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박용업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회장은 "민·관 합동 환경 정비 및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상가 미관 개선 및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경각심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내 취약지 도시미관



전주시는 지난 26일 전주한옥마을일원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1회용품줄이기 시민활동가 등과 함께 중점관리구역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정비에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문제는 행정·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 및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마을버스 '바론' 운전원 공개 채용

전주시설공단, 마을버스 '바론'의 확대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한다.

공단은 바론은 운전원 3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송천동과 호성동, 삼천동을 지나는 10개 노선에 차량 11대를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버스를 1년 이상 운전한 실무경력이 있다면 전주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사이트(<https://jss.jobnlab.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 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공단은 전주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바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특히 출범 이후 지금까지 90% 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등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운영 초기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 등 전주시민의 든든한 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차량 대부분을 친환경 전기버스로 도입해 생태교통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방광일 마을버스운영부장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바론을 확대 운영하는 만큼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과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질 바론은 운전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최대 200mm 쏟아진 전북... 피해 잇따라

차량 침수·축대 붕괴로 주민 대피 등 피해 속출

전북지역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각종 피해도 잇따랐다.

2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익산이 218mm로 가장 많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군산 198mm, 완주 190mm,

전주 140mm, 진안 125mm 등으로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내 피해도 잇따랐다.

전주 송천동 지하차도와 익산 춘포면의 한 농로에서 차량이 각각 침수돼

운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2명의 운전자를 구조했다.

이밖에도 전주 진북터널 입구에 위치한 나무가 쓰러져 터널이 잠시 통제됐으며, 완주의 한 민간공사장에서는 축대가 붕괴돼 인근 주민 2가구가 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뉴시스

전주시새마을회, 화산초 외벽 벽화 보수 봉사로 '화사한 등굣길' 조성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송병용)는 지난 26일 전주화산초등학교 외벽에 그려진 벽화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벽화 코팅작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송병용)와 새마을지도자전주시협의회(회장 박창석), 전주시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미), 새마을문고전주시지부(회장 이운자)를 비롯한 각 동 회장과 새마을지도자 및 전주시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그린 벽화를 보수·보강하는 봉사를 펼쳤다.

이에 앞서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전주시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20여 명과 전주시 새마을지도자 30여 명 등 총 50여 명은 지난해 삭막했던 화산초등학교 담벼락을 탄소중립 실천과 동심이 가득한 거리로 꾸미는 벽화 그리기 봉사를 전개한 바 있다.

송병용 전주시새마을회 회장은 "벽



전주시새마을회는 지난 26일 전주화산초등학교 외벽에 그려진 벽화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벽화 코팅작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화 작업을 위해 힘써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동참해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화산초

등학교 등굣길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10회 전국 품바명인전

올해 출연하는 명인들



이주일



홍도



광범



국민MC - 서정우



조대가수 - 진국이



조대가수 - 수정



서봉식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2023년 6월 2일
전주풍남문화광장